

정도전과 서적포 — 한 혁명가의 서적관

독서의 풍속사 — 4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서적포’는 고려 숙종 때 비서감의 목판을 이관해 인쇄를 담당하게 한 국자감의 인쇄기관이지만, 무신난 이후 그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다. 고려 말 정도전은 새로운 이념인 성리학을 유포하고 혁명의 우익을 양성하기 위해 서적포를 부흥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도전 생전에 서적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조선 태종 때 이르러서야 주자소로 바뀌어 본격적으로 유교서적을 펴내기 시작했다.

정도전의 《삼봉집》에 희귀한 시 한 편이 있다. 제목은 〈서적포를 설치하는 시(置書籍鋪詩)〉다. 이 시 앞에는 긴 서문이 있는데, 함께 인용해 보자. 인용처는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삼봉집》이다.

“대저 선비된 자가 비록 학문의 길로 향할 마음은 있을지라도 만약 서적을 얻지 못하면 또한 어찌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동방은 서적이 드물고 또 많지 않아서 배우는 자가 모두 글을 널리 읽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삼으니, 나 역시 이 점을 유감으로 여긴 지 오래였다. 그래서 절실한 소원이 ‘서적포’를 설치하고 동활자를 만들어서(鑄字), 무릇 경(經)·사(史)·자(子)·서(書)·제가(諸家)·시·문과 의방(醫方)·병(兵)·율(律)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인출해서 학문에 뜻을 둔 자로 하여금 다 글을 널리 읽어 시기를 놓치는 한탄을 면하도록 하고자 하니, 오직 제공(諸公)은 사문(斯文)을 흥기하는 일로 자기 책임을 삼아서 다행히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선 문노니, 무엇이 사람 지혜 보태 줄까,
미질(美質)이 아닌 바엔 문장을 말미암느니,
한스럽긴 동방에 서적이 적어서
열상자님은 책을 읽은 사람이 없네.
늘그막엔 아무리 못 본 글을 얻더라도
다 읽고 책 덮으면 돌아서서 잇는 걸.
마음속의 염원은 서적포를 설치하여,
후학에게 널리 읽혀 무궁토록 전하게 하는 것.
그대 윤리 해치는 오랑캐를 보게나,

그 글이 서가와 동량에 가득 찼네.
그는 성하고 우리는 쇠했다 한탄 마오,
우리들 스스로 뜻이 강하지 못한 걸.
여러분께 청하노니 서적 비용을 도와,
사도를 부디 빛나게 하오.”

서적포를 설치하고 동활자를 주조해 서적을 널리 간행해 선비들에게 보급하자는 주장이다. 서적포는 고려 숙종 6년 3월에 비서감의 목판을 이관해 인쇄를 담당하게 한 국자감의 인쇄기관이었다. 그런데 서적포의 운영 방식과 서적의 유통에 대한 정보는 《고려사》에 단 한 줄도 남아 있지 않다. 또 이후 무신난, 몽고의 침입 등으로 인해 서적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어쨌거나 정도전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었던 서적포의 기능을 부활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그의 의도는 과연 실현됐던 것인가? 《증보 문헌비고》〈예문고〉에서는 위의 시 서문을 인용하고, 태종 3년에야 비로소 주자소를 만들었으니, 정도전의 말은 시행되지 않은 공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교이념 보급하기 위해 서적포 설치 주장해

한데 당시 혁명의 제일선에 서 있던 정도전이 한가롭게 왜 서적포를 들먹이는 것인가? 사실 그의 서적포 설치 의도는 이념 투쟁의 색채가 농후하다. 이 부분을 보자. “그대 윤리 해치는 오랑캐를 보게나. 그 글이 서가와 동량에 가득 찼네.” ‘윤리 해치는 오랑캐’란 다름 아닌 불교다. 즉 당시의 서적은 불교서적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에 대항해 유가의 서적 등을 대량 인쇄·유포할 것을 염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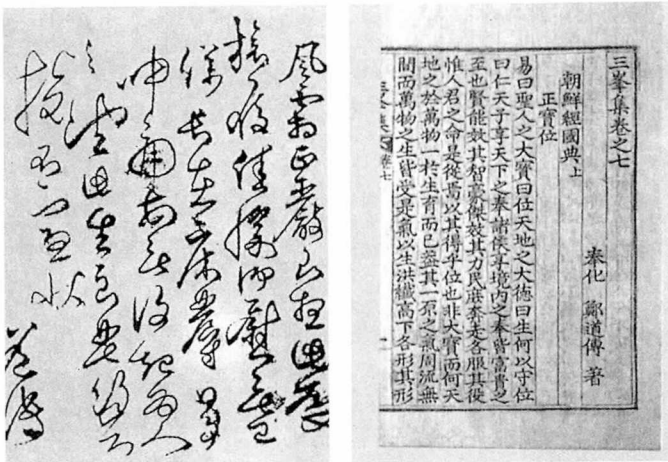
서적포는 당연히 국학의 하부기관이다. 그가 서적포를 들먹였던 것은 바로 국학, 곧 이 시기로 말하자면 성균관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균관에는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려사》를 보건대, 1304년 안 향이 중국 강남에서 서적을 대량 구입한 뒤, “학문을 지원하는 선비와 칠관(七管, 국학에 설치된 七齋), 십이도(十二徒, 私學 12徒)의 제생(諸生)이 경서(經書)를 끼고 수업하는 자가 거의 수백 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안 향은 1290년 경 북경에 있을 때 처음 성리학을 접하고 주자의 서적을 베껴서 온 사람이다. 그는 귀국 후 퇴락한 성균관을 재건하고 성리학을 보급하는 데 골몰했다. 강남에서 방대한 서적을 수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안 향 이후 성균관은 성리학이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보급하는 기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균관은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소실되고, 16년(1365)에 중건된다. 새 성균관을 이끈 주역은 누구였는가? 겸대사성(兼大司成)은 이 색(李穡), 박사(博士) 겸 대사성은 정몽주, 교관(敎官)은 김구용(金九容)·박상충(朴尙衷)·박의중(朴宜中)·이승인(李崇仁) 등이었다. 이들은 고려말 성리학을 이념적 지주로 삼았던 이른바 신흥사대부의 핵심세력이었다. 이들이 성균관을 장악한 이후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흥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닌가. 정도전도 공민왕 19년(1370)에 성균박사에 임명돼 위의 인물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담토(談討)를 통해 새로운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성균관은 성리학이란 새로운 사상을 공유하는 신흥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우익을 양성하는 기관이 돼 있었던 것이다.

역성혁명의 우익 양성하려는 정도전의 의도

〈치서적포시〉는 1390년 이후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390년 이후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주도하는 실력자였다. 1391년 9월부터 1392년 봄까지 반대파에 의해 잠시 귀양살이를 하지만, 이내 복귀해 7월에 조선을 건국한다. 역성혁명을 꿈꿨던 이 시기에 정도전은 무엇을 생각했던 것인가? 혁명은 혁명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사유를 가진 동반자가 필요한 법이다. 동일한 사유를 복제하고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출판사가 죽출하고, 좌파 서적이 쏟아져 나온 것을 생각해 보라. 정도전이 서적 인쇄와 금속활자의 제작에 주목한 데서 나는 혁명가의 날카로운 안목을 확인한다.



정도전의 글씨(왼쪽)와 《삼봉집》.

성리학을 자기 이념으로 수용한 신흥사대부들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 예컨대 정몽주는 성리학의 이해에서 당대 제일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도전은 정몽주에게 편지를 보낸다.

“요즘 오고가는 말을 들으니, ‘달가(達可, 정몽주의 자)가 《능엄경》을 보니, 불교에 현혹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달가가 《능엄경》을 보는 것은 그 속의 병통을 알아서 치료를 하자는 것이지, 그도를 좋아하여 정진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혼자 말로써 ‘나는 달가가 부처에게 아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 달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그

“불교는 성리학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과 일상의 의식에 여전히 강고히 서식하고 있었고, 불경은 지식인들의 변함없는 독서물이었다. 정도전이 〈서적포시〉에서 불경을 비판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정도전은 ‘서적포’를 유가-성리학의 이데올로기로 재생산해 광포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그 이데올로기에 의식화된 혁명의 우익을 양성하려 했던 것이다.”

소위가 우리 도의 흥폐(興廢)를 가름하고 있으므로 자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둡고 어리석어서 의혹되기는 쉽고 효유(曉諭)하기는 어렵사오니 달가는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손한 어조지만, 정몽주가 《능엄경》을 읽는 것이 성리학의 전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불경을 읽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 서적의 독서, 그리고 불교에 대한 경사는 성리학을 진리로 표방하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유종(儒宗)으로 존경을 받았던 이 색 역시 공민왕 원년에 상소문을 올려 불교를 극력 비판했지만, 아버지 이 곡(李穀)의 뜻을 따라 《대장경》을 간행하는가 하면, 우왕의 명으로 서보통탑(西普通塔)의 기문을 지어 부처에게 아침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불교는 성리학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과 일상의 의식에 여전히 강고히 서식하고 있었고, 불경은 지식인들의 변함없는 독서물이었다. 정도전이 〈치서적포시〉에서 불경을 비판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정도전은 서적포를 유가-성리학의 이데올로기로 재생산해 광포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그 이데올로기로 의식화된 혁명의 우익을 양성하려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주자소’로 바뀌어 유교서적 발행해

조선 태조 7년 8월 26일 방원(뒤의 태종)의 손에 정도전의 숨이 끊어진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한 바리는 족히 되겠지만, 여기서 늘어놓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서적포를 설치 하자는 정도전의 의도는 성사되지 않고, 공양왕 4년에 금속활자와 서적 인쇄를 관장하는 서적원이 설치됐다. 공양왕 4년은 조선 태조 원년(1392)이고, 서적원은 조선으로 승계됐다. 하지만 조선의 서적원은 별반 실적이 없었다.

정도전이 염원했던 동활자는 그의 숨을 끊었던 정적 태종의 명에 의해 제작됐고, 서적포는 주자소란 이름으로 바뀌어 유가의 서적을 쏟아냈다. 토사구팽이라, 혁명이 완성되면 너무 잘난 공신은 제거되는 법이 아니던가? 정도전의 영혼은 태종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동활자를 보고 씩씩히 웃었을 것이다. ■